

# 原三國時代 貝塚文化

## －研究成果 및 諸問題－

崔 盛 洛

### 目 次

- |                      |             |
|----------------------|-------------|
| I. 머리말               | 2. 出土遺物の 檢討 |
| II. 貝塚遺蹟의 調査現況 및 研究史 | 3. 年代問題     |
| III. 貝塚文化의 諸問題       | 4. 貝塚의 性格   |
| 1. 層序의 檢討            | IV. 맺음말     |

### I. 머리말

貝塚은 당시 文化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유적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것은 패총에서 당시의 生活道具 뿐만 아니라 동물뼈, 조개류 등 각종 自然遺物도 풍부하게 출토되기 때문이다.

原三國時代의 패총에 대한 관심은 1907년 김해 회현리패총의 발굴로 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지금까지 많은 패총이 알려졌고 발굴조사된 것도 20여곳에 이른다. 그러나 패총에 대한 성격규명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것은 패총유적이 충분히 조사되어 발표되지 못한 점에도 원인이있지만 이들 유적의 연대관이 학계에서 일치하지 않는 등 연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지금까지 조사된 패총의 현황과 이와 관련된 연구현황을 알아본 후에 그 중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몇가지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본고에

서 언급되는 원삼국시대의 패총은 시기적으로 원삼국시대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패총유적은 그 연대 폭이 크기 때문에 상한 혹은 하한이 청동기시대나 삼국고분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 II. 貝塚遺蹟의 調査現況 및 研究史

지금까지 조사된 패총 중에서 청동기시대로부터 원삼국시대에 걸치는 유물이 발견된 패총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1) (그림 1)

〈표 1〉 패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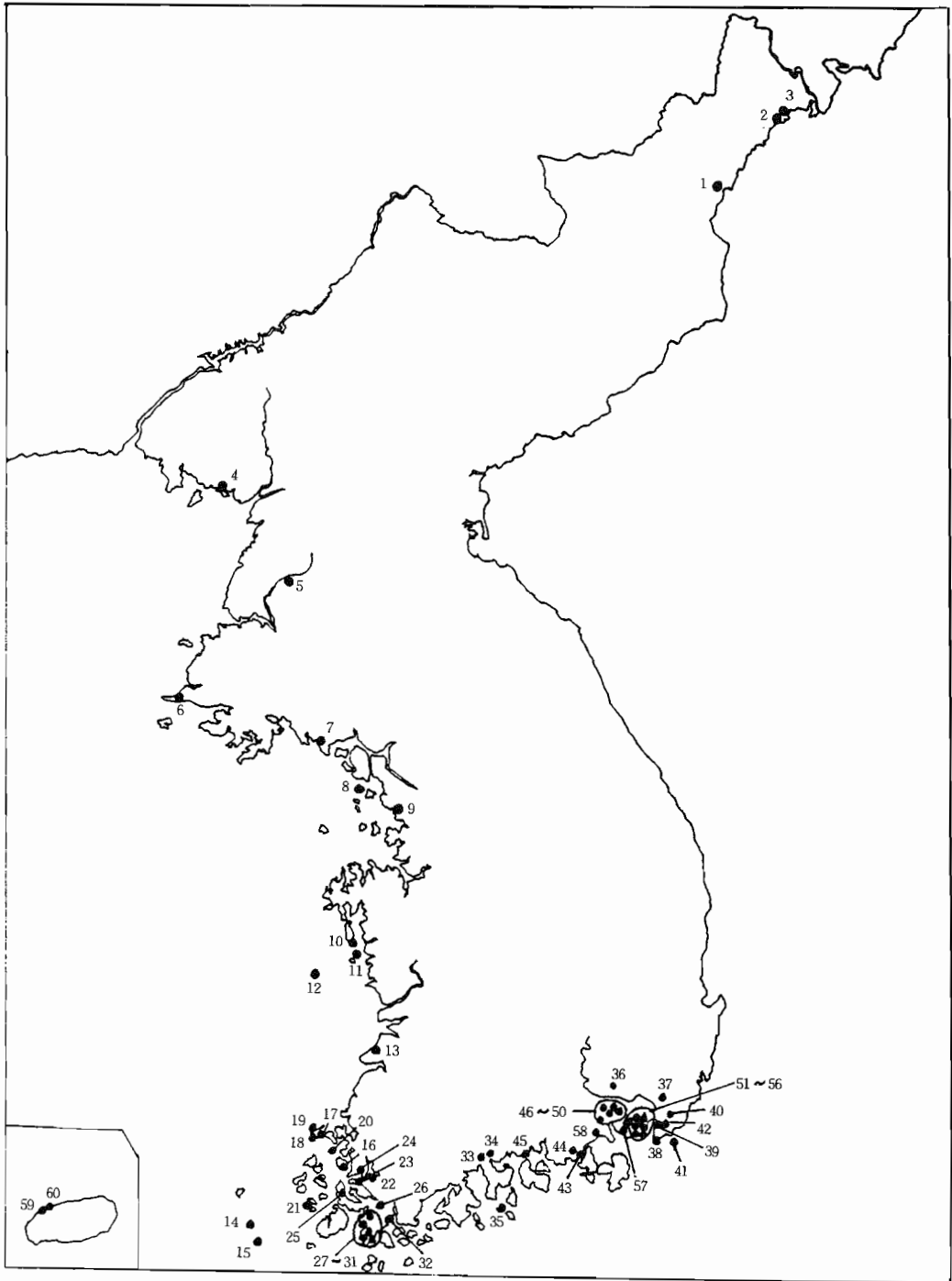
번호	유적명	소재지	조사기간	참고문헌	비고
1	農浦里 貝塚	咸北 清津市 農浦洞	1956	「청진 농포리 원시유적 발굴」, 『문화유산』 4, 1957.	
2	素淸里 貝塚	咸北 羅津郡 素淸里		황기덕, 「함경북도 지방 석기시대의 유적과 유물(1)」, 『문화유산』 57-1, 1957.	
3	內浦里 貝塚	咸北 羅津郡 內浦里		황기덕, 未詳.	
4	堂山 貝塚	平北 定州郡 大山里		도유호, 『조선원시고고학』, 1961.	
5	美林洞 貝塚	平壤 大同郡 美林洞		朝鮮總督府,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 1917.	
6	夢金浦 貝塚	黃海道 龍淵郡 夢金浦		朝鮮總督府, 未詳.	
7	天臺山 貝塚	黃海道 延安郡 天臺山		金元龍, 『韓國史前遺蹟遺物地名表』, 1965.	
8	矢島 貝塚	京畿道 襄津郡 北道面	1958 1970	韓炳三, 『矢島貝塚』, 국립중앙박물관, 1970.	발굴조사
9	草芝里 貝塚	京畿道 始興郡 君子面	1978	金元龍, 「草芝里(別望)貝塚發掘調査」, 『韓國考古學報』 7, 1979.	발굴조사

번호	유적명	소재지	조사기간	참고문헌	비고
10	古南里 貝塚	忠南 瑞山郡 古南面	1988	漢陽大博物館, 『安眠島古南里貝塚』 I · II, 1990.	발굴조사
11	元山島 貝塚	忠南 保寧郡 元山島		金載元, 『韓國西海島嶼』, 1957.	
12	外煙島 貝塚	忠南 保寧郡 外煙島		金載元, 沒책.	
13	大項里 貝塚	全北 扶安郡 大項里		崔夢龍, 「大項里貝塚」, 『考古美術』 115, 1972.	
14	下苔島 貝塚	全南 新安郡 下苔島	1967	金元龍 · 任孝宰, 『南海島嶼考古學』, 1968.	
15	可居島 貝塚	全南 新安郡 可居島	1867	金元龍 · 任孝宰, 沒책.	
16	大川里 貝塚	全南 新安郡 押海面		崔夢龍, 「全南地方支石墓社會의 編年」, 『진단학보』 53 · 54, 1982.	
17	大機里 貝塚	全南 新安郡 荏子面	1987	崔盛洛, 「新安地方의 先史遺蹟 · 古墳」, 『新安郡의 文化遺蹟』, 木浦大博物館, 1989.	
18	鷗山里 貝塚	全南 新安郡 荏子面		崔夢龍, 「荏子島의 先史遺蹟」, 『고문화』 제20집, 1982.	
19	三頭里 貝塚	全南 新安郡 荏子面		崔夢龍, 沒책.	
20	갈마도 貝塚	全南 新安郡 曾島面	1987	崔盛洛, 「新安地方의 先史遺蹟 · 古墳」, 『新安郡의 文化遺蹟』, 木浦大博物館, 1987.	
21	於隱里 貝塚	全南 新安郡 荷衣面		金元龍 · 任孝宰, 『南海島嶼考古學』, 1968.	
22	梅月里 貝塚	全南 靈巖郡 鶴山里	1986	崔盛洛, 「靈巖地方의 先史遺蹟」, 『靈巖郡의 文化遺蹟』, 木浦大博物館, 1986.	
23	羅佛里 貝塚	全南 靈巖郡 三湖面	1986	崔盛洛, 沒책.	
24	聖子洞 貝塚	全南 木浦市 聖子洞	1991	崔盛洛, 「木浦地域의 先史文化」, 『木浦先史文化 學術심포지움』, 木浦文化院, 1991.	

번호	유적명	소재지	조사기간	참고문헌	비고
25	大津里 貝塚	全南 海南郡 山二面	1986	崔盛洛, 「海南地方의 先史遺蹟·古墳」, 『海南郡의 文化遺蹟』, 木浦大博物館, 1986.	
26	옥녀봉 貝塚	全南 海南郡 海南邑	1986	崔盛洛, 沒책.	
27	美也里 貝塚	全南 海南郡 松旨面	1986	崔盛洛, 沒책.	
28	安湖里 貝塚	全南 海南郡 花山面	1986	崔盛洛, 沒책.	
29	白浦里 貝塚	全南 海南郡 縣山面	1986	崔盛洛, 沒책.	
30	於蘭里 貝塚	全南 海南郡 松旨面	1986	崔盛洛, 沒책.	
31	郡谷里 貝塚	全南 海南郡 松旨面	1986~88	崔盛洛, 『海南郡谷里貝塚』 I·II·III, 1987~89.	발굴조사
32	筏亭里 貝塚	全南 康津郡 薪田面	1988	崔盛洛, 「康津郡의 先史遺蹟·古墳」, 『康津郡의 文化遺蹟』, 木浦大博物館, 1989.	
33	禮當里 貝塚	全南 寶城郡 得糧面	1990	林永珍, 「寶城郡의 考古學遺蹟」, 『寶城郡의 文化遺蹟』, 全南大博物館, 1992.	
34	金坪 貝塚	全南 寶城郡 筏橋邑	1990	林永珍, 沒책.	발굴조사
35	松島 貝塚	全南 麗川郡 突山邑	1989·90	國立光州博物館, 『突山松島』 I·II, 1989·90.	발굴조사
36	西上里 貝塚	慶南 昌寧郡 西上里		金元龍, 『韓國史前遺蹟遺物地名表』, 1965.	
37	梁山 貝塚	慶南 梁山郡	1922 1967	小泉縣夫外, 『大正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 1924. 韓國考古學會, 『考古學』 1-2, 1968·69.	발굴조사
38	多大浦 貝塚	釜山市 西區 多大浦	1966	金龍基, 「多大浦貝塚發掘調査報告」, 『釜大史學』 2, 1971. 大曲美次郎, 慶南多大浦貝塚發見, Dolmen 3-6.	발굴조사
39	岩南洞 貝塚	釜山市 西區 岩南洞		有光教一, 「朝鮮 岩南洞貝塚」 『朝鮮學報』 36, 1965.	

번호	유적명	소재지	조사기간	참고문헌	비고
40	樂民洞 貝塚	釜山 東萊區 樂民洞	1967~69	韓國考古學會, 『考古學』 1, 1968.	발굴조사
41	朝島 貝塚	釜山 影島區 朝島	1972	韓炳三·李建茂, 『朝島貝塚』, 東亞大博物館, 1976.	발굴조사
42	槐亭洞 貝塚	釜山市 西區 槐亭洞		崔鍾圭, 「金海期 貝塚의 立地에 대해서」, 『古代研究』 2, 古代研究會, 1989.	
43	松鶴洞 貝塚	慶南 固城郡 松鶴洞		韓國編纂委員會, 『韓國史』 1, 1973.	
44	東外洞 貝塚	慶南 固城郡 東外洞	1974	金東鎬, 「固城 東外洞 貝塚」, 『上老大島』, 東亞大博物館, 1984.	발굴조사
45	勒島 貝塚	慶南 三千浦市 勒島	1985·86	釜山大博物館, 『勒島住居址』, 1989.	발굴조사
46	城山 貝塚	慶南 昌原市 外洞	1974	文化財管理國, 『馬山外洞城山貝塚發掘報告』, 1976.	발굴조사
47	內洞 貝塚	慶南 昌原市 內洞	1988	慶北大博物館, 『原三國時代文物展』, 1990.	발굴조사
48	南山洞 貝塚	慶南 昌原市 南山洞		國史編纂委員會, 『韓國史』 1, 1973.	
49	召沓里 貝塚	慶南 昌原市 召沓里		國史編纂委員會, 沒책.	
50	加音丁 貝塚	慶南 昌原市 加音丁		趙由典, 「貝塚調查報告」 『文化財』 5, 1971.	발굴조사
51	水住里 貝塚	慶南 金海郡 長有面	1979	鄭澄元·申敬澈, 『金海 水住里 貝塚』, 釜山大博物館, 1981.	발굴조사
52	會峴里 貝塚	慶南 金海市 會峴洞	1920	賓田耕作·梅原末治, 「金海 貝塚發掘調查報告」, 『大正九年度古蹟調查報告』 1, 1923.	발굴조사
53	府院洞 貝塚	慶南 金海市 府院洞	1980	沈奉謹, 『金海 府院洞貝塚』, 東亞大博物館, 1981.	발굴조사

번호	유적명	소재지	조사기간	참고문헌	비고
54	盤龍山 貝塚	慶南 金海市		崔鍾圭, 「金海期 貝塚의 立地에 대해서」, 『古代研究』 2, 古代研究會, 1989.	
55	七山 貝塚	慶南 金海市		崔鍾圭, 未책.	
56	유하리 貝塚	慶南 金海市		崔鍾圭, 未책.	
57	態川 貝塚	慶南 鎭海市 態川洞	1959 · 61 · 64	金廷鶴, 「態川 貝塚研究」, 『亞細亞研究』 10-4, 1967.	발굴조사
58	縣洞 貝塚	慶南 馬山市 縣洞	1990	慶北大博物館, 『原三國時代 文物展』, 1990.	발굴조사
59	郭支 貝塚	北濟州郡 郭支里	1979	李清圭 · 李白圭, 『郭支 貝塚』, 1985.	발굴조사
60	錦城里 貝塚	北濟州郡 錦城里		李白圭, 「濟州道 無文土器에 대한 一考察」, 『考古學』 5 · 6, 1979.	



<그림 1> 패총 분포도

알려진 패총은 모두 60개소로 전남지방과 경남지방 등 주로 남해안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북부지역이나 중부지역에서 극히 적은 수가 발견되었다.

또한 이들 중에서 지금까지 발굴 조사된 원삼국시대의 패총은 다음과 같다.(표 2)

〈표 2〉 原三國時代 貝塚 調査現況

번호	유적명	조사연도	조사내용	참고문헌
1	金海 會峴里貝塚	1907 1920 1934·35	시굴조사 패각층의 발굴 지석묘, 석관묘, 옹관묘 발굴	1)
2	鎭海 慈川貝塚	1959·61·64	패각층의 발굴	2)
3	梁山貝塚	1922 1966 1967	일본학자들의 시굴조사 서울대팀 조사 국립박물관팀 조사	3)
4	釜山 東萊貝塚	1930 1967·68·69	일본학자들 조사 국립박물관팀 조사	4)
5	釜山 朝島貝塚	1972	패각층, 무덤 조사	5)
6	固城 東外洞貝塚	1969·70 1974	패각층 조사(국립박물관) 패각층 조사(동아대박물관)	6)
7	昌原 城山貝塚	1974	동구, 서남구, 북구 조사	7)
8	濟州 郭支貝塚	1979	패각층 조사	8)
9	金海 府院洞貝塚	1980	패각층, 주거지, 무덤 조사	9)
10	三千浦 勒島貝塚	1985·86	패각층, 주거지, 무덤 조사	10)
11	海南 郡谷里貝塚	1986·87·88	패각층, 주거지, 토기요지 조사	11)
12	昌原 內洞貝塚	1988	도로공사로 일부 패각층 조사	12)
13	馬山 縣洞貝塚	1989	고분, 주거지, 패총 등 복합유적	13)
14	昌原 加音丁貝塚	1971 1991	시굴조사 패각층 조사	14)
15	寶城 金坪貝塚	1992	패각층 조사	15)
16	金海 會峴里 鳳凰臺貝塚	1992	시굴조사 패각층, 주거지, 환호 조사	16)

1) 寅田耕作·梅原未治, 「金海貝塚發掘調査報告」, 『大正9年度古蹟調査報告』 1, 1923.

樞本杜人, 「金海貝塚の再檢討」, 『考古學雜誌』 40-3, 1954.

樞本杜人, 「金海貝塚の甕棺と箱式石棺—金海貝塚の再檢討(承前)—」, 『考古學雜誌』 43-1, 1957.



- 樞本杜人, 「朝鮮先史墳墓의 變化過程とその編年—金海貝塚の再檢討(承前)—」, 『考古學雜誌』 43-2, 1957.
- 樞本杜人, 『朝鮮의 考古學』, 同朋舍, 1980.
- 2) 金廷鶴, 「熊川貝塚研究」, 『亞細亞研究』 10-4, 1967.
  - 3) 小泉顯夫外, 『大正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慶尙南道忠清南道古蹟調査報告—』, 1924.  
보고서 미간.(韓國考古學會, 『考古學』 1·2, 1968·69 참조)
  - 4) 藤田亮策, 「東來의 甕棺出土」, 『靑丘學叢』 2, 1930.  
及川民治郎, 「東來貝塚」, 『ドルメン』 2-4, 1933.  
보고서 미간.(韓國考古學會, 『考古學』 1, 1968 참조)
  - 5) 韓炳三·李健茂, 『朝島貝塚』, 국립중앙박물관, 1976.
  - 6) 金鍾徹外, 『固城貝塚 發掘報告書』, 국립중앙박물관, 1992.  
金東鎬, 「固城 東外洞貝塚」, 『上老大島』, 동아대박물관, 1984.
  - 7) 文化財管理局, 『馬山外洞城山貝塚發掘調査報告』, 1976.
  - 8) 李清圭·李白圭, 『郭支貝塚』, 제주대박물관, 1985.
  - 9) 沈奉謹, 『金海 府院洞貝塚』, 동아대박물관, 1981.
  - 10) 보고서 미간(부산대 박물관팀 조사).  
申敬澈, 「慶南 三千浦市 勒島遺蹟」, 제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1985.  
부산대박물관, 『勒島住居址』, 1989.
  - 11) 崔盛洛, 『海南 郡谷里貝塚』, 1~3, 목포대박물관, 1986~88.
  - 12) 보고서 미간(창원대 박물관팀 조사). 경북대박물관, 『원삼국시대 문물전』, 1990.
  - 13) " (창원대 박물관팀 조사). 경북대박물관, 『원삼국시대 문물전』, 1990.
  - 14) " (창원문화재연구소 조사). 조유전, 「패총조사보고」, 『문화재』 5, 1971.
  - 15) " (전남대 박물관팀 조사).
  - 16) " (부산대 박물관팀 조사).

이상의 조사현황을 종합하면 원삼국시대의 패총이 조사된 곳은 15개 유적(봉황대패총은 회현리패총과 동일한 유적으로 봄)으로 발굴된 회수는 30회에 가깝다. 이외에도 신석기시대의 패총에서 원삼국시대의 유물이 출토된 유적으로는 경기도 시도패총, 안산 별망패총, 전남 여천 송도패총, 경남 김해 수가리패총, 부산 다대포패총 등 5개소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패총발굴은 시굴조사의 성격을 가진 예가 많으며 패총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조사는 극히 적었다. 더구나 발굴조사된 경우에도 보고서가 간행되지 못한 것이 많아 패총을 연구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소라 생각된다.

최초의 원삼국시대 패총발굴은 김해패총에서 이루어졌다. 김해 회현리패총은 1907년에 시굴조사된 이래로 일본학자들에 의해 여러차례 발굴조사되었다. 이것은 당시 일본학자들이 이 유적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일본학자들은 金石併用期라는 시대구분을 제시하였고, 김해지방과 일본지역이 서로 관계가 깊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 유적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1920년에 조사된 패각층 부분과 1934년경에 조사된 지식묘, 석곽묘 및 옹관묘 등 무덤부분이 있는데 이들 간의 연대적인 관계이다. 有光教<sup>1)</sup>은 이 패총의 상한을 옹관과 연결지으면서 기원전후로 보았고 하한은 古墳의 盛期로 보았다.<sup>1)</sup> 한편 金元龍은 패각층이 무덤 이후에 퇴적되었을 것으로 보았으나 상한을 여전히 기원전후로 보았고 패각층이 단일층이므로 그 형성기간이 300년을 넘지 못한다고 보아 하한을 기원후 3세기로 보았다.<sup>2)</sup> 한편 김용간은 일본학자들의 견해를 비판하면서 무덤과 패각층의 연대를 기원전 천년기 전반부터 기원후까지 여러 시기의 것이 섞여 있다고 보았다.<sup>3)</sup>

또한 웅천패총이 조사되고 그 연대가 기원전 1세기 이래의 유적임이 주장되면서 남해 안에 분포하는 패총의 연대가 기원전후로 부터 3세기간에 걸친 원삼국시대의 유적임이 일반적인 인식으로 자리잡았다.

그 후 조도패총의 발굴을 통해 김해문화의 시작(다시 말하면 김해식토기의 시작)이 기원전 2세기경까지 올라갈 수 있음이 제기되었고 더불어 성산패총 발굴보고서에서도 기원전 3세기경까지 소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sup>4)</sup>

1) 有光教一, 「金海貝塚土器の上限と下限」, 『考古學雜誌』 40-1, 1954. (金正基역, 「金海貝塚의 上限과 下限」, 『考古學』 1, 1968, 141~154면)

2) 金元龍, 「金海貝塚年代에 대한 再檢討」, 『歷史學報』 9, 1955, 107~121면.

3) 김용간, 「김해 조개무지의 무덤에 대하여」, 『고고민속』 67-1, 1967.

4) 韓炳三·鄭澄元, 「東區貝塚 發掘調査報告」, 『馬山外洞城山貝塚發掘報告』, 文化財管理局, 1976, 62~65면.

그리고 김해 부원동패총이 발굴되자 이 패총을 원삼국시대에서 고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시되었다.<sup>5)</sup>

그러나 80년대 초에는 이상의 견해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패총의 상한이 기원전 3~2세기까지 올라갈 수 없고<sup>6)</sup> 또한 이들 패총의 중심연대가 기원후 4세기대로 떨어지는 고분기의 유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sup>7)</sup> 따라서 현재까지 이들 패총의 중심연대가 원삼국시대인지 아니면 삼국고분기인지에 대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그리고 삼천포 늑도패총과 해남 군곡리패총이 발굴되면서 원삼국시대 이전에 철기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의 문화상을 알게 되었다.

한편 필자는 원삼국시대의 토기를 검토하면서 패총에서는 (경질)무문토기 다음에 와질토기의 단계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패총의 연대를 지나치게 내려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sup>8)</sup>

그 밖에 패총의 立地와 形成時期의 環境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sup>9)</sup>

이상의 研究史를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들 중에서 貝塚의 層序問題, 出土遺物問題, 年代問題, 貝塚의 性格問題 등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5) 金元龍, 「金海 府院洞期の 設定」, 『韓國考古學報』 12, 1982.

6) 申敬澈, 「熊川文化期 紀元前 上限說 再考」, 『釜大史學』 4, 1980.

7) 申敬澈, 「釜山. 慶南出土 瓦質系土器」, 『韓國考古學報』 12, 1982.

崔鐘圭, 「陶質土器 成立前夜와 그 展開」, 上揭書.

8) 崔盛洛, 「原三國期 土器의 變遷과 問題點」, 『嶺南考古學』 5, 1988.

9) 吳建煥·郭鐘喆, 「金海平野에 대한 考古學的 研究(1)」, 『古代文化』 2, 1989, 3~49면.

崔鐘圭, 「金海期 貝塚의 立地에 대하여」, 上揭書, 133~145면.

郭鐘喆, 「洛東江 河口域에 있어서 先史~古代的 漁撈活動-貝塚貝類를 中心으로 본 一側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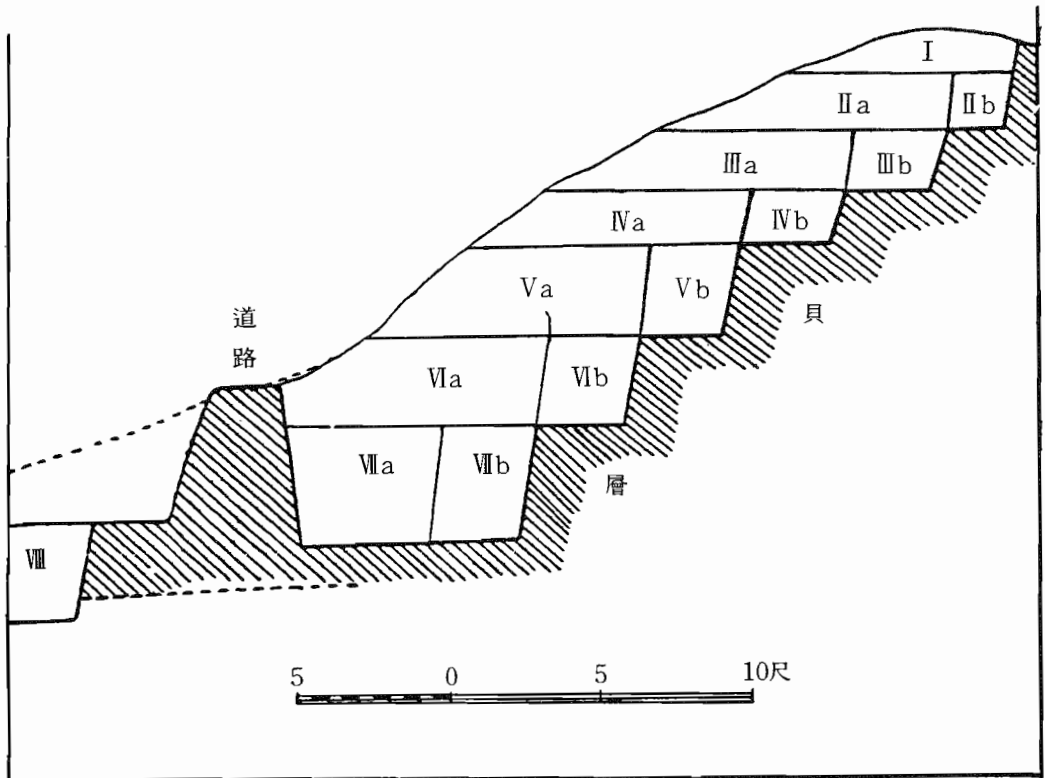
『伽耶文化』 3, 1990, 137~229면.

安春培外, 「伽耶社會의 形成過程研究 -金海地域을 中心으로-」, 『伽耶文化研究』 1, 釜山女大, 1990, 45~114면.

### Ⅲ. 貝塚文化의 諸問題

#### 1. 層序의 檢討

지금까지 패총의 발굴을 검토해 보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다. 최초의 발굴인 김해패총에서는 自然層이 무시되고 계단식발굴법을 채용하였는데 최상층과 최하층에서 거의 같은 내용의 유물이 출토되어 층서적 발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有光教一은 김해패총의 패각층에서 최하층인 Ⅶb層과 최상층인 Ⅱa層 사이에 유물의 차이가 관찰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sup>10)</sup>(그림 2)



<그림 2> 金海貝塚의 層序圖

10) 有光教一, 주 1) 전계논문.

웅천패총은 구릉 정상부의 평지로 인공층(20cm)에 의해 층을 구분하여 발굴하였으나 그 내용에서 별다른 차이점을 얻지 못하였다.

그 뒤 층서의 구분이 비교적 확실한 발굴은 조도패총과 성산패총의 경우이다. 조도패총은 3개층으로 구분하였는데 최하층(1층)에서는 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가 섞여 있고, 그 위층(2·3층)에서는 대부분 타날문토기가 출토였다. 한편 성산패총은 4개층으로 구분하였는데 최하층(Ⅳ層)은 역시 무문토기층이고 그 위층은 타날문토기가 주류를 이루는 층이다. 그런데 이들 패총에서 무문토기층 다음에 바로 타날문토기층으로 연결되거나 혹은 일부 혼재되어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 사이가 연속적인 것으로 보았고 적갈색연질토기와 회청색경질토기의 발생시기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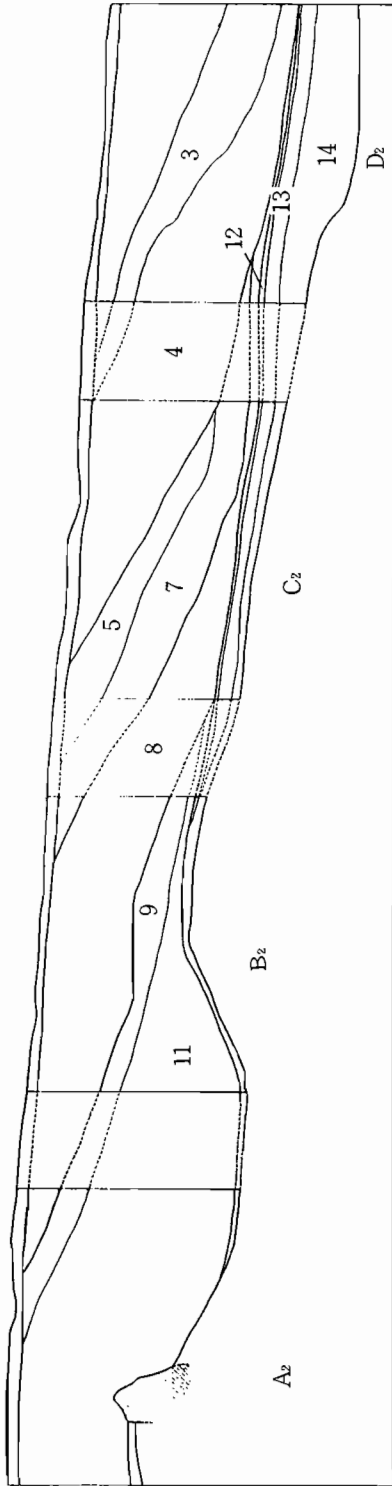
이상의 패총 발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패각층의 조사가 층서적 발굴이 되지 못하였고, 설사 층서적 발굴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층간의 세밀한 문화적인 변화를 찾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패각층이 다른 유구와 달리 쉽게 교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필자가 조사한 군곡리패총은 이와같은 점을 고려하여 층서적 발굴과 각 층간의 문화적인 변화를 찾는 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군곡리패총에서는 자연층을 14개로 나눌 수 있었고 다시 이를 5개의 기층으로 묶을 수 있었으며 각 기층간의 문화적인 변천도 어느 정도 밝힐 수 있었다.(그림 3) 또한 미세한 유물의 추출을 위해 블록 샘플링(Block Sampling) 한 후 이를 워터 플루테이션(Water Floatation) 작업을 하였다. 그러나 이 발굴도 유적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패각의 분포상황이나 퇴적 과정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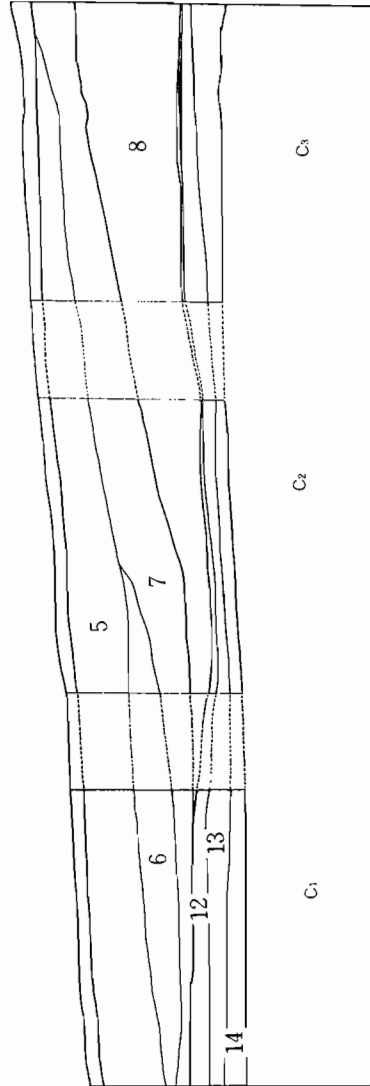
한편 그리드 방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각기동발굴법(Block Trench Method)이 보성 금평패총에서 시도되었는데<sup>11)</sup> 이 발굴법의 성과는 발굴보고서가 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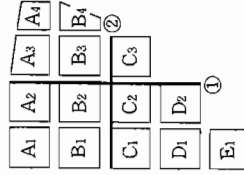
11) 전남대박물관, 「금평패총 발굴 약보고」(1992) 참조.



① A<sub>2</sub> B<sub>2</sub> C<sub>2</sub> D<sub>2</sub> 피트 동벽층위도



② C<sub>1</sub> C<sub>2</sub> C<sub>3</sub> 피트 막벽층위도



<그림 3> 海南 郡谷里貝塚의 層序圖

된 이후에나 평가될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패총의 발굴은 우선적으로 자연층을 중요시하면서 발굴목적에 따른 적합한 발굴법의 선택이 필요하고, 가능한 한 미세한 자료를 놓치지 않은 정밀한 발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패각층과 더불어 주거지 등 주변의 유구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병행하여야 한다.

## 2. 出土遺物の 檢討(표 3)

원삼국시대의 패총에서는 토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土器의 종류에는 硬質無文土器·硬質擦文土器·赤褐色軟質土器·灰青色硬質土器 등이 있으나 土壙墓에서 출토되는 전형적인 瓦質土器는 극히 적다. 토기의 기형은 다양하며 경질무문토기와 함께 소형토기나 이형토기가 많이 출토되는 점이 특징이다. 토제품에는 방추자·어망추·원판형토제품 등이 있다. 특징적인 것은 동외동패총에서 발견된 印文陶片과 삼천포 늑도패총에서 출토된 彌生式土器片 등으로 외부 지역과의 교류를 나타낸다. 패총에서 출토된 토기는 과거에 金海式土器 혹은 熊川式土器로 불리우다가 그 후에 이를 적갈색연질토기, 흑색연질토기, 회청색경질토기 등으로 세분되었고 경질무문토기나 경질찰문토기의 존재도 확인되었다.<sup>12)</sup>

鐵器類에는 철도자·철부·철제늪시 등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늦은 패총에서는 鐵劍·鐵鏃 등 武器類와 鐵鎌 등 農器具類도 발견된다.

骨角器類는 도자병·골촉·골침·침두기 등과 彫骨(군곡리, 웅천, 조도패총)·卜骨(부원동, 회현리, 늑도, 군곡리패총) 등이 있다. 骨角器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卜骨에 대하여는 渡邊誠의 연구가 있다.<sup>13)</sup>

12) 崔盛洛, 주 8) 전개논문.

13) 渡邊誠, 「郡谷里貝塚出土の卜骨の研究」,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文集』 110(史學37), 1991, 127~159面.

〈표 3〉 貝塚 出土 遺物現況

유적명	입지	출토유물				추정연대*
		토기류	청동기·철기	석기·골각기	장신구 및 기타	
김해 회현리	구릉 20m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斧, 刀, 刀子, 鎌, 鐵鐵片	도자병, 골촉, 골침, 석부	貨泉, 獸骨, 炭化米, 방추차	A.D.1~3 세기
김해 부원동	평지 5~10m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刀子, 槍, 鐵, 뉘시바늘	도자병, 골촉, 침두기, 복골, 석부, 석검	토제곡옥, 관옥, 구슬, 방추차, 어망추	A.D.2~4 세기
동래	평지					
양산	산지	타날문토기	刀子	도자병, 솥들		A.D.1세기
부산 조도	평지	무문토기, 타날문토기	刀子, 鎌, 뉘시 바늘	침두기, 골촉, 도자병, 石鐵 石劍, 石鑿	어망추	B.C. 2세기 ~A.D. 1세 기
창원 성산 (東區)  (西南區)	구릉 30m	무문토기, 홍도,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小形斧	침두기, 골촉, 골침, 도자병, 반월형석도, 石 斧, 石棒 등	骨製뒤꽂이, 수정제곡옥, 방추차, 어망추  五銖錢	B.C. 3세기 이후
창원 내동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도자병		
창원 현동		타날문토기				
진해 웅천	산지 210~ 220m	타날문토기	刀子, 刀, 斧, 鐵, 뉘시바늘, 鎌, 槍, 작살, 鐵片	도자병, 골촉, 彫骨, 석부	토제곡옥, 관옥 아제곡옥	A.D. 1~3 세기
삼천포 늑도	해안	경질무문토기				B.C. 2~1 세기
고성 동의동	구릉 60~61m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細形銅劍 着製具, 廣形銅鉢, 漢鏡	골촉, 도자병	방추차	
해남 군곡리	구릉 20~22m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刀子, 斧, 뉘시바늘편	도자병, 골촉, 골침, 작살, 뒤 지개, 복골, 침 두기, 솥들, 흙 돌, 石鐵, 石槍	토제곡옥, 뼈製 뒤꽂이, 유리· 수정제·토제옥, 어망추, 방추차, 貨泉	B.C. 1세기 ~A.D. 3세 기
제주 팍지	경사면 30m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刀子, 끌형철기, 片, 자루형철기	도자병, 침두기 石斧, 흙돌, 솥들, 연석	어망추, 방추차, 원판형토제품	A.D. 3~4 세기

\* 추정연대는 발굴보고서에 의거함.



裝身具類는 토제곡옥·유리제 소옥·골제 뒤꽂이(군곡리, 부원동패총) 등이 있다.

기타 遺物로서는 中國의 貨幣인 貨泉(김해 회현리, 해남 군곡리패총)과 五銖錢(창원 성산패총)이 있고, 漢鏡과 廣形銅銚(동외동패총) 등이 있다. 그런데 貨泉의 경우 군곡리패총에서는 경질무문토기층인 11층(Ⅱ期層)에서, 김해패총에서는 타날문토기와 함께 VIa층에서 출토되어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남해안에서 출토된 貨幣에 대하여 池健吉의 연구가 있다.<sup>14)</sup>

그 밖에 穀類, 동물뼈, 貝殼類 등의 自然遺物도 많이 발견되었는데 최근에는 자연유물에 대한 분석을 각 보고서에서 대부분 다루고 있다.

이와같이 대부분의 패총에서 토기류를 제외하면 거의 동일한 유물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기원전의 유적인 늑도패총이나 군곡리패총(하층) 등과 기원후의 유적인 김해 부원동패총이나 진해 웅천패총 등이 유물의 조합상에서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들 패총간에 거의 동일한 문화가 단절없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패총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서 토기나 철기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많으나 그 밖의 유물에 대한 연구가 극히 저조하다. 특히 자연유물에 대한 분석은 발굴보고서와 함께 실려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종합하는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 3. 年代問題

지금까지 패총의 연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한 고고학적 방법에 의하기 보다는 임의로 연대를 결정하는데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패총의 연대가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었다. 즉 패총유적의 상한연대를 기원전 3~2세기 경까지 올려보거나 그 중심연대를 기원후 4세기 이후로 보려는 견해 등이 있다.

14) 池健吉, 「南海岸地方의 漢代貨幣」, 『昌山金正基博士華甲記念論叢』, 1990, 534~549면.

연대를 올려보는 견해의 근거는 대체로 타날문토기와 함께 무문토기들이 같은 층에서 출토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로 다른 遺構(주거지나 무덤)에서 타날문토기가 공열토기 등 무문토기와 공반되는 예는 거의 없다. 따라서 타날문토기가 기원전 3~2세기경 부터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으며 80년대 이후에 그와같은 연대는 주장되지 않았다. 다만 비슷한 근거로 타날문토기(회청색경질토기 포함)의 등장을 기원전후로 잡고 있는 견해는 여전히 남아 있다.<sup>15)</sup>

연대를 내려보는 측의 견해는 대체로 토기편년에 의거하고 있다. 기원후 1~3세기를 대표하는 토기는 과거의 김해식토기가 아니고 와질토기이며, 경질의 타날문토기(회청색경질토기 혹은 도질토기)는 고분기의 토기라고 보면서 이를 근거로 꽤총의 연대를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도 역시 고고학적 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연대관이 아님은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는 다음과 같은 모순을 보여준다. 이 견해를 가진 늑도주거지의 보고자들은 군곡리패총의 Ⅱ·Ⅲ期層의 연대를 기원전 1세기로 부터 기원후 1세기경으로 보았고, V期層의 연대는 3세기후반 내지 4세기로 잡으면서 그 중간에 와질토기가 출토되지 않았다 하여 시간적인 공백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sup>16)</sup> 그러나 군곡리패총은 퇴적양상이나 출토유물의 변화를 보더라도 중간에 시간적인 공백이 없이 연속적인 퇴적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무덤에서 발견되는 회청색경질토기의 연대도 점차적으로 올려보고 있는 경향이다. 즉 이 토기의 발생시기가 처음에는 4세기 초로 주장되었으나 최근에는 3세기 초반 혹은 2세기 대로 높여보는 견해가 있다.<sup>17)</sup> 따라서 회청

---

15) 崔秉鉉, 「鎭川地域 土器와 窯址와 原三國時代 土器의 問題」, 『昌山金正基博士華甲記念論叢』, 1990, 568~577면.

16) 釜山大博物館, 『金海 水佳里貝塚』, 1981.

17) 朴孝澤, 「洛東江下流域 加耶墓制의 系統」, 제3회 古代史學會 學術發表會, 1992.

郭東哲, 「嶺南地方 出土 組合式牛角形把手附壺에 대한 研究」, 『考古歷史學志』8, 東亞大博物館, 1992.

색경질토기는 모두 고분기의 토기라는 고정관념이 수정되고 있으며 패총의 연대를 낮추어 보는 견해는 재고되어야 한다.

다음은 패총의 형성기간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한가지 예를 들면 같은 발굴팀이 조사한 수가리패총<sup>18)</sup>과 늑도패총<sup>19)</sup>의 연대를 살펴보자. 규모가 비슷한 두 유적 중에서 수가리유적은 신석기 중기에서 말기까지 약 1500년간 형성된 유적으로 보는데(물론 후기와 말기 사이에 시간적인 공백이 있을 것으로 보았지만) 비해 늑도패총은 기원전 2세기 중엽에서 기원전 1세기 전반까지 약 60~70년동안에 형성된 유적으로 본다면 이것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늑도유적과 같이 원삼국시대 패총의 연대 폭을 너무나 짧게 잡고 있는 점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해남 군곡리패총<sup>20)</sup>을 중심으로 몇몇 패총의 연대를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군곡리 I期層의 연대를 살펴보면, 이 층은 청동기문화층으로 기원전 3~2세기경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청동기시대 문화층은 조도패총과 성산패총의 하층에서도 비교적 잘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군곡리패총의 II·III期層의 연대로 기원전 1세기경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기원후 1세기 후반까지 계속적으로 지속되었다고 보고자 한다. 기원전 2세기 중엽에서 1세기로 보는 유적으로는 삼천포 늑도패총이 있어 이 단계의 문화양상이 경질무문토기를 중심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고성 동외동패총이나 마산 성산패총에서도 나타나지만 독립적인 층으로 나타나지 않아 무시된 것 같다.

그 다음은 군곡리패총의 IV·V期層의 연대이다. 이 시기의 유적에는 조도패총이나 부원동패총 B·C지구 등도 포함되는데 그 연대가 기원후 2세기 내지는 3세기경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김해패총도 많은 부분이 이 시기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18) 釜山大博物館, 주 16) 上掲書.

19) 釜山大博物館, 『靑島住居址』, 1989.

20) 崔盛洛, 『海南 郡谷里貝塚』 1~3, 1987~89.

그 뒤로는 김해 부원동패총(A지구) 및 진해 웅천패총 등이 있다. 이 두 유적에서는 고분기의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고 있어서 원삼국시대로부터 고분기에 걸치는 유적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패총들은 이미 청동기시대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군곡리패총(Ⅱ期層), 늑도패총 등에서 보듯이 기원전 2세기 내지 1세기경 부터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더욱 발달되었고 기원후에도 계속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일부 패총은 고분기까지도 계속되었을 것이다.

한편 군곡리패총을 비롯하여 각 패총에서 출토된 C-14연대는 기원전 4세기에서 기원후 3세기까지 나타나고 있다. 경질무문토기가 출토되는 해남 군곡리패총, 마산 성산패총, 조도패총의 연대는 기원전 3~2세기경으로 나오고 있고, 경질의 타날문토기가 출토되는 웅천패총, 양산패총 등의 연대는 기원후로 나오고 있어 연속적인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측정된 C-14연대의 수가 적어 신뢰성이 떨어지고, 고고학적 추정 연대와는 100년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표 4)

#### 4. 貝塚의 性格

원삼국시대의 패총은 대개 험한 산지나 구릉 위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을 조망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방어적인 유적으로 보고 있다.<sup>21)</sup> 그러나 패총은 비교적 높은 곳에도 있으나 낮은 지역에도 위치하고 있으며 당시의 해안선과 멀지 않은 경우가 많아 바다와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 또한 패총에서 출토된 유물들 중에는 漁撈와 연계되는 道具가 狩獵이나 農耕과 관련된 道具 보다도 많아 이들의 생활이 바다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

21) 崔鐘圭, 주 7) 전계논문.

〈표 4〉 貝塚遺蹟의 C-14 年代

번호	유적명	층위	시료종류	측정연구소	연대(B.P.)*	보정연대**
1	군곡리(B)	하층(Ⅱ기층)	목탄	學習院大學	1880±80	AD 105±55
2	군곡리(A)	11층( " )	"	"	1050±110	***
3	"	11층( " )	패각	名古屋大學	2220±90	BC 220±210
4	"	8층(Ⅲ기층)	"	"	1930±90	AD 20±120
5	"	5층(Ⅳ기층)	"	"	2060±100	BC 165±215
6	"	7층( " )	"	"	2210±110	BC 300±130
7	"	5층( " )	"	"	2260±110	BC 340±130
8	"	4층(Ⅴ기층)	"	"	2240±80	BC 320±110
9	"	2층( " )	"	"	2700±100	***
10	웅천	지표하 135cm	목탄	미취간대학	1910±150	AD 80±60
11	조도	Ⅲ층	"	원자력연구소	2200±70	BC 310±110
12	양산	S 1구 1층	"	理化學研究所	1750±120	AD 225±155
13	"	S 6구 2층	"	"	1520±120	시료부족
14	"	S 6구 3층	"	"	1750±120	AD 225±115
15	"	N 2구 3층	"	"	1840±110	AD 140±110
16	창원 외동	A구 Ⅴ층	패각		2200±100	BC 285±145
17	"	A구 Ⅷ층	"		2125±100	BC 210±200
18	웅진 시도		"		1980±60	BC 25±95

\* 반감기는 5570년임.

\*\* 연대보정의 방법은 Ralph and Ralph(1973)에 따랐다.

\*\*\* 두 연대는 지나치게 다른 절대연대가 나와 연대보정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패층에서 출토된 卜骨, 裝身具類와 같이 청동기문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유물이 많아 당시 사회가 한층 발전된 社會임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中國 貨幣, 銅鏡, 卜骨 등은 海路를 통해 中國이나 日本과의 교류가 활발하였음을 보여준다. 즉 이들 패층은 일부를 제외하면 中國으로 부터 日本에 이르는 海路上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패총을 통한 원삼국시대의 社會研究는 패총에서 출토된 자료로 한정한다면 불가능할 것이며 패총과 관련된 모든 遺構의 연구가 선행되고 당시의 環境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우선 이들 패총과 직접 관련되는 遺構로는 住居址와 무덤(甕棺墓·石棺墓·土壙墓)이 있는데 住居址는 대부분 竪穴住居址이나 시기적으로 늦은 김해 부원동패총에서는 高床家屋이 출현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초기에 가장 관련성이 깊은 무덤으로는 甕棺墓를 들 수 있으나 역시 늦은 시기에는 石槨墓나 土壙墓도 관련되고 있다. 당시의 環境에 대하여 吳建煥·郭鐘喆의 연구가 있다.<sup>22)</sup>

그러나 패총유적이 전면적으로 발굴되지 않아 이와 관련된 遺構가 적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복원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당시의 環境에 대한 연구도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패총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서는 출토된 유물의 세밀한 분석, 주변 遺構의 전면적인 발굴과 더불어 自然環境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IV. 맺음말

이상과 같이 원삼국시대 패총을 중심으로 검토해 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삼국시대의 패총은 남해안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발굴조사의 부족과 보고서의 미출간은 패총의 연구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또한 이들 패총에 대한 연구는 다른 유구와 다르게 우선 층서적 발굴이 되지 않으며 공반유물에 대한 검토가 어렵다. 따라서 엄격한 층서적인 발굴과 출토유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패총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 특징이나 인공유물 이외에도 자연유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

22) 吳建煥·郭鐘喆, 주 7) 전계논문.

패총의 연대문제는 고고학적 편년의 미비로 그 중심연대에 대한 주장이 판이하게 제시되는 등 연대문제에 한정된 느낌을 주고 있다. 패총의 편년을 무덤의 편년과 같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것은 패총이 비교적 쉽게 교란되어 선대와 후대의 유물이 쉽게 섞이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패총의 층서적 발굴이 선행되어야 하고 객관적인 편년이 정립된 이후에 패총의 연대를 산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발굴된 자료를 근거로 살펴보았을 때 패총은 청동기시대 이래로 원삼국시대와 고분시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 유적의 성격은 바닷가에서 어로를 바탕으로 생활하던 주민들이 남긴 것으로 앞 시대 보다는 복잡한 사회구조를 지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생활상은 주변 관련유구의 발굴과 출토된 자연유물의 분석으로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패총을 남긴 주민들은 바다를 통해 중국이나 일본 등지와 문화적 교류를 비교적 활발하게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논고는 지금까지 패총문화에 대한 연구의 성과를 정리해 보면서 어떤 결론을 맺기 보다는 연구를 새로이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생각한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있기를 바란다.